

# 한국의외교사 집담회 발제문(13. 9. 14)

이택선

김태식, 『삼국사기』 원전자료의 성격(서평,  
이강래 1996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이강래에 따르면 『삼국사기 전거론』은 주로 전거의 측면에서 정덕본 “삼국사기”의 형성과정과 김부식의 인식을 추구한 것으로 삼국사기가 고려 초에 편찬된 『구 삼국사』를 토대로 보완된 것이라는 이전의 설을 부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의 훼손 등을 막고자 한다.

책은 제1장 분주론, 제2장 고기론, 제3장 구 삼국사론, 제4장 사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분주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삼국의 왕실 계보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교유자료가 다양하였다. 2. “삼국사기” 편찬의 근거를 “구 삼국사”와 같은 사서로만 제한할 수 없다. 3. 본기와 열전의 편찬자나 분주자가 달랐다. 결론적으로 “삼국사기” 편찬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사서가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2장(고기론)을 요약하면 1. “고기”는 특정한 단일 사서가 아니지만 중국 측 기록의 오류를 지적하고 본문 구성 자료에 대한 새로운 설을 제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면 “삼국사기”의 편찬자가 “고기”를 매우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규보가 말하는 “구 삼국사”를 “본국고기”나 “삼한고기” 등의 특정 사료와 연관시킬 수는 없다. 3. “삼국유사”에서 언급하는 “고기”와 “삼국사기”에서 인용하는 고기가 용례 상 일체성을 보인다. 4.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가 잘못된 연대관이나 설화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일연에 의해 비판받거나 불신되었다. 결론적으로 “삼국사기” 이전에는 단편적이고 설화적인 성격의 “고기”들이 많았

고 “삼국사기”는 이를 삼국의 분류사 체계에 맞추어 정리한 최초의 편찬 사서였다.

제3장 구 삼국사론의 결론을 제시하면 “삼국유사”에서 인용되는 자료들은 절대 다수가 “삼국사기”를 가리키는 것임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강래는 “구 삼국사”와 “삼국유사”를 중시하여 “삼국사기”의 가치를 폄훼하는 논의들에 대하여 반론을 가하고 있다. 제4장은 “삼국사기”를 재분석하여 구체적인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김부식 자신의 현실정치 역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 조인성, 『삼국사기』의 사료적 성격에 대한 종합적 검토,(정구복, 신동하 외,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1995)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는 크게 1. 국어사, 불교사, 미술사, 음악사, 문학사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의 사료적 성격과 가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남풍현, 김지전, 문명대, 김영운, 김도련), 2. 원전자료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들(정구복, 신동하, 권덕영, 노중국, 김태식)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자는 2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조인성은 정구복이 다음과 같은 2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비판한다. ①“삼국사기” 중 특별한 전거가 없는 부분은 “구 삼국사”에 의거하여 서술되었을 것이다.(정구복) Vs “삼국사기”와 “구 삼국사”를 구체적으로 대조하고 “삼국사기” 속의 “구 삼국사”를 복원할 수 있을까?(조인성). ②“삼국사”의 편찬자들이 궁예가 고구려 계승의식보다는 신라 계승의식을 지닌 것으로 바꾸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정구복) Vs “삼국사기”속에서 궁예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않게 등장한다.(조인성)

다음으로 조인성은 신동하의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비판한다. ①광개토대왕까지는 국내 자료의 이용비율이 50%를 넘는 반면 장수왕대 이후에는 50%미만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동하) Vs 이기동에 따르면 미천왕대까지는 설화나, 정치, 천재에 관한 사항이 많은 것에 비해 이후부터는 전쟁과 외교에 관한 기사가 많으며 국내 자료 이용비율은 이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조인성). ②“신집”은 대체로 광개토왕 이후의 사실을 담은 역사서이며

이후 중국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신동하)Vs “유기”의 편찬 시기가 국초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영양와 때 “신집”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자료에 많이 의존하여 이용비율이 높았고 이후는 중국자료의 의존비율이 높았던 것이 아닐까?(조인성)

한편, 조인성은 권덕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신라 본기의 견당사 기록을 분석하면 중국 자료 의존 비율이 높다.(권덕영)Vs 국내 자료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는 이유는 편찬자들이 견당 시기와 입당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조인성). 다음으로 조인성은 노중국의 견해를 정리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백제 지리 관계 기사를 보면 “고전기”가 지리지 백제조의 주요 자료임을 알 수 있다.(노중국)Vs 이에 동의하지만 이따금 동일한 시기를 선택하지 않아 동등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난다. 또, “고전기”가 언제 만들어진 것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조인성은 김태식의 견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지리지 신라 조의 원전이 신라 말에 작성되었다.(김태식)Vs 대체적으로 맞지만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조인성)

## 이강래, 『삼국사기』 원전론을 위하여(고관민, 『삼국사기의 원전 적 연구』, 1996.)

### 2. 고관민의 삼국사기 원전론

#### 1)백제 본기의 국내 원전

1. 8세기의 지명이 전무하다. 2. 지명이 연대순으로 적혀 있고 특정원전에서만 추출되어 있다. 즉, “구 삼국사”가 “삼국사기” 편찬의 주요 자료이지만 지리 작성에 있어서는 보조 자료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본기의 기본 원전은 “구 삼국사”임을 알 수 있다. 4. 문주왕 이후의 한성 등 일부 지명은 믿기 어렵고 7세기 초에 이르기 까지 백제의 한성영유를 주장하는

백제 사료는 왜곡된 것이다.

## 2) 신라 본기의 국내 원전

백제 본기의 원전과 마찬가지로 신라 본기의 기본 원전 역시 고구려의 영역 지배와 관련하여 왜곡이 저질러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왜의 침입 관계 기사를 동원하여 신라의 고구려에의 종속 관계를 은폐하려고 했다.

## 3) 고구려 본기의 국내 원전

영양왕 때 편찬된 “신집”이 고구려 본기의 국내 원전이었다.

## 4) 삼국사기의 한 원전으로서의 김유신 행록

김유신 행록이 “삼국사기”의 주요 원전 중 하나였으며 이후 “삼국유사”의 원 사료로도 이용되었다.

## 3. “삼국사기” 원전론을 둘러싼 문제들

### 1. 고관민과 신동하의 논쟁

### 2. 사료의 문제: 필사본 “화랑세기”의 이용문제